

# 대조국전쟁(1941-1945)에 참여한 소수민족

- 고려인과 그리스인을 중심으로 -

부가이(N. F. Bugai) 著\*

李 鎔 權 譯\*\*

1. 문제제기 및 연구동향
2. 전쟁과 소수민족
3. 전쟁과 그리스인
4. 마무리

## 1. 문제제기 및 연구동향

러시아 학계에서 1941-1945년의 대조국전쟁에 참전한 소수민족들에 대한 문제를 다룬 연구는 지금까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은 소련 사회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으며, 소련 경제의 잠재력(전쟁수행 능력 측면을 포함)을 발전시키는 한편 정신적 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공헌을 해왔다.

\* 역사학박사(교수, 러시아학술원 러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정치학박사(러시아학술원 러시아역사연구소)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왜 이들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인가? 문제는 일련의 인민들(연방 및 자치공화국, 민족 단위의 관구)과 함께 소수민족들은 스탈린 정부의 민족정책 때문에 높은 수준의 경제적, 정신적 발전을 하지 못하고, 저급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는데 있다. 즉 정치적 자결권을 갖는 명의민족(titular nation)에 비해 분산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다.

소련의 붕괴 이후 1990년대 러시아의 민주개혁은 소련 영토 내의 다양한 민족(종족) 사회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연구 가능성을 높였다. 1941-1945년 대조국전쟁에 참전한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 또한 시작되었다. 소수민족의 생활습관과 전통을 문화, 인류학적 측면에서부터 그들의 민족운동적 열망 등 사회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소련 시기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민족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시민적 권한을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역사적 연구도 존재하였다. 그 중 전쟁 시기에 대한 연구 역시 소수민족의 정체성 회복이란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1941-1945년 대조국전쟁 기간 동안 고려인, 러시아 그리스인, 그리고 다른 민족 사회에 대한 소련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는 다양한 이유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 한인 이주 140 주기(1864-2004)가 중요한 동인을 제공하였다. 고려인 역사에서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했을 때, 이것은 러시아의 다른 소수민족들(그리스인, 꾸르드인, 투르키-메스헤티인, 인게르만란드인 등)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또한 이것은 1941-1945년 대조국전쟁 기간 동안에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존재하였던 탄압을 정부가 민족정책을 수립하여 인민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민주개혁이었다.

이러한 연구에 고려인과 러시아 그리스인도 포함되었다. 고려인과 러시아 그리스인 민족 사회를 동시에 연구하는 것은 소수민족들에 대한 권력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소수민족에 대한 권력기관의 정책 실천

능력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1930-1940년대 소련사회의 정치, 군사 정책이 존재했었고, 다민족 국가에서 삶의 구축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민족 정책 관련 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인에 대해서는 1990년대 체첸 위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인이 탈출해 나온 일들이 회자되었다. 당시 그리스인은 유대인 등 다른 대표적 소수민족들과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체첸지역을 빠져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하였다.

1941-1945년 대조국전쟁에 고려인이 참전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필자의 관심 영역이었다. 이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사적자료와 원전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자신의 조국(소련)을 지키려는 고려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전선으로 보내 줄 것을 군사인민위원부(Военный комиссариат)에 청원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이들의 청원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고려인들의 그러한 행동은 그들이 높은 시민적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이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의 성을 러시아 성으로 바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그런 경로를 통해 고려인들도 붉은 군대에 동원될 수 있었다.

연구자가 얻은 소중한 자산은 전쟁에 직접 참전한 이들 -고려인- 의 회고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선으로 떠나면서 조국 앞에 자신의 시민적 의무를 다하려 했던 훌륭한 면모와 명예를 갖고 있었다.<sup>1)</sup>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측면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즉, 소련 내 개별 단위의 소수민족들은 후방에서 전쟁을 지원할 목적으로 노동전선, 노동대열(трудовая колонна)에 강제적으로 투입되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도 없이 전쟁 후방 조직 즉, 1941-1945년 정부 권력 기관이 의존하였던 붉은

1) Дорогой горных испаний . К 60-летию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М., 1997; Н. Ким, "О доблести, о подвиге, о славе",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No.3. 1997; "Из воспоминаний доктора би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В. И. Тена" Ариран, No.3 (23). 2002, февраль; Цой Валентин, "Москов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Мама, я вернулся с победой",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No. 4 (37). 2003. апрель. и др..

군대의 후방 조직 형태와 방법을 밝히는데 흥미로운 것이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조국전쟁에 참여한 그리스인이나 고려인 등 소수민족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려인은 독일인, 폴란드인, 크림 타타르인과 함께 대규모 노동대열에 편입되었고, 이 노동대열은 지역에서 강제동원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하나의 결론은 후방의 견고함이 없으면 전선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후방에서 고려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이 강제동원 노역을 하였지만, 그들이 만들어 낸 적에 대한 승리, 노동전선에서의 승리에 대한 공헌은 평가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고, 고려인과 다른 소수민족들의 분명한 역할과 위치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아직은 러시아 학계에서 이 어려운 역사 문제가 이제 연구에 착수했다는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다.<sup>2)</sup>

우선 위에 언급된 소수민족들의 참전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전문 연구는 논문 모음 형식의 단행본인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우러 갔다: 대조국전쟁에서 탄압받은 소련의 인민 대표들(Они сражались за Родин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народов СССР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 2006)"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대조국전쟁 기간 동안 그리스인과 고려인을 포함한 소련의 모든 인민들에 적용되었던 대규모 실험을 언급하고 있고, 민족관계 영역에서 스탈린 정부 정책의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 Н. Ф. Бугай Социальная натурализация и этническая мобилизация(опыт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и), М., 1998; Н. Ф. Бугай,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 трудовых колоннах и рабочих батальонах выполнения аланов НКВД", Вера и жизнь, No. 11 М., 1998; "Корейское этническое меньшинство в российской историографии", Вера и жизнь, No. 16. М., 2000. ;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и политика «солнечного тепла», М., 2002; «По решен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юза СССР...», Сборник документов и материалов (в соавт.), Нальчик, 2003; Корейцы в Союзе ССР-России XX-й век (история в документах), М., 2004 и др.

이 문제는 “전쟁과 사회: Вой на и общество. 1941-1945. М. 2004. (총 2권)”라는 전체 주제로 과학아카데미 러시아역사연구소에서 발간된 책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이 책은 대조국전쟁 기간 동안 소련에 살았던 소련 인민과 소련사회의 삶을 폭 넓은 파노라마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삶의 조건과 적에 대한 전체적인 승리의 공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려인과 그리스인에 대해서 이 책은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은 토대 연구가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조국 수호전쟁에 참여한 그리스인 문제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이것은 1930-1950년대 소련에서 탄압받은 인민에 대한 명예회복이 시작된 것과 관련이 있다.<sup>3)</sup> 바로 이 기간 동안 붉은 군대에서 탄압을 받고 돌아온 그리스 군대의 전체 수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49년 소련 내무인민위원회(НКВД)가 조사한 특별 이주자 수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붉은 군대에서 복무하였던 그리스인의 수(크림 지역 그리스인 수)는 장교 8명, 선임병사 86명, 일반병사 465명 등 총 569명이었다.<sup>4)</sup>

그리스인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은 꼬쨌니스(A.Н.Коцонис)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의 연구에서 의미 있는 부분은 1941-1945년 전쟁의 직전과 과정,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계 소수민족에 대한 역사-법률적 측면과 관련된 부분이다. 물론, 꼬쨌니스는 1941-1945년 전쟁에 그리스인이 참전한 문제 또한 다루고 있다. 여기서 꼬쨌니스는 소연방 내무인민위원부의 1943년 8월 2일 명령(приказ)과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문서에 주목하고 있다. 이 문서는 그리스인의 붉은 군대로의 소집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꼬

3) К. В. Цкагипшвили, Т. Г. Чинчилакашвили, Геро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з Грузии, Тбилиси, 1981; Г. Арменюпулос, Раздумья опального командира, М., 1993; Н. Розов, “Судьба режиссера”, Понтос (Анапа), 1994, No. 3;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е народы России чеченцы и нигуши. Документы и комментарии, М. 1994. 연구 모음집에는 탄압 때문에 군에서 조기 소집해제 되어 돌아온 탄압받은 인민들로 구성된 군대 수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다. А. Н. Коцонис “Гречи Союза СССР”, Они сражались за Родин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народов СССР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 2006. и др.

4)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е народы СССР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 1994, с. 171.

쨌니스는 1945년 6월 13일자의 소연방 내무인민위원부의 규정도 검토하였다. 이 문서는 일련의 붉은 군대로부터 그리스인의 소집해제, 붉은 군대에 소집되었던 원래의 지역이 아닌 그들의 가족이 강제이주 된 지역(특히, 스페르들롭스크주)으로의 부대 재배치를 내용에 담고 있다.<sup>5)</sup>

소련에는 실질적으로 소수민족 또는 소수 그룹의 동원과 소집해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것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매우 엄격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다. 고려인과 비교할 때 그리스인은 노동대열의 작업에서 큰 매력이 없었다. 꼬쨌니스의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단지 부분에 불과하였다.

## 2. 전쟁과 소수민족

### (1) 고려인 - 전후방 참전자의 공헌과 증언

#### 1) 전선에서의 활약

고려인들은 러시아(소련)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였다. 1930년대 말쯤에는 고려인들에게 소비에트적 인간의 멘탈리즘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조국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러시아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아왔다. 그들은 하나의 외투를 입고 땅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들판에 나갔다. 게다가 들판에 수수가 있든 지뢰가 있든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 땅에서 성장한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로루스인, 독일인과 고려인, 프랑스인과 몽골인, 이들은 러시아의 몸통이었고, 러시아의 알맹이이며, 러시아의 힘이었다.....”<sup>6)</sup>.

5) 다음을 참조. А. Н. Коцонис, От княжеской Руси к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оссии (российские греки: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сопричастности), М., 2006.

이것은 러시아 내의 다른 민족 공동체들과 관계를 맺어온 고려인 사이에서 많은 사실들이 증명해 준다. 예를 들면, 고려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정교를 수용하였고, 이는 간접적으로 자바이칼 그리스정교청(ведомости. 1914. N 20): 치타 미션 교회의 30명의 고려인은 승원관장(그리스 정교회의 관직: 역자주) 에프렘(Ефрем)에게 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희망(청원: 역자주)을 하였다.

에프렘 신부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었고 군무지사(военный губернатор)에게 부탁해보도록 조언을 하였다. 짧은 기도를 마친 후 승원관장 에프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러시아 정교를 받아들인 고려인들은 지금 러시아의 수호자가 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러시아를 제2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러시아를 사랑하고, 목숨을 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sup>7)</sup>. 그리고 실제로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의무와 원칙에 충실했으며, 그들은 그러한 원칙을 삶의 지표로 삼았다.

게다가 대조국전쟁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수백 명의 고려인들은 군사인민위원회(военкомат)에 전선으로 보내줄 것을 청원하였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영웅적으로 자신의 조국(소련)을 지키기 위해 파시스트들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한(М.Н. Хан)씨의 회상에 따르면 “수천의 젊은 고려인들 중에는 중등학교를 겨우 마친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지역 군정치위원회에 전선으로 보내달라는 청원을 하였다. 그러나 전체주의 스탈린 체제는 고려인 주민을 믿지 못하였다. 고려인들이 잠재적인 일본의 지원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고려인이 일련의 붉은 군대 정규군이 되는 것은 소련 정부에 의해 거절되었다”<sup>8)</sup>.

6) А.Медиков, “Надо уважать, а не унижать...”, <http://www.mg.chita.ru/vprin.php?number=28&article=449>

7) А. Гумеров, “Житие пресвященного Ефрема, епископа Селенгинского викария Забайкальской епархии (1876-1918).”, [http://www.pravoslavie.ru/put/sv/efrem\\_sel.htm](http://www.pravoslavie.ru/put/sv/efrem_sel.htm) 29.01.2002.

8) Они сражались за Родин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народов СССР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 2005, с. 172; Дорогой горьких испытаний, М., 1997 и др.

그 이유에 대해 유가이(Г.А. Югай) 교수는 자신의 책 “동일 세대의 사회-정신적 초상의 특징(Штрихи к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му портрету своего поколения)”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고려인을 전선으로도, 군 관련 어떠한 곳으로도 소집하지 않았으며, 고려인 중에서 군책 임자이었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탄압을 받았다. 전선에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보내졌다. 그들은 군사인민위원부의 실수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출신 신분을 속이고 다른 민족인 것처럼 위장해서 갈 수 있었다. 그들 중에는 소련 영웅이 탄생하기도 하였고, 여기에서 사람들은 높은 충성심을 보이면서 매우 맛있는 금단의 열매를 맛보았다”<sup>9)</sup>. 이것은 국가권력 기관의 공식 문서에도 나와 있다. 특히 1943년 8월에 작성된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제2운영과의 “소련에서 고려인 대열: Корейская колония СССР”이라는 문서에는 “입수한 첩보 자료에 따르면 고려인들은 만족스러운 정치-도덕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높은 애국심이 있었고, “실제 군대에 자발적으로 참전하고자 하는 청원을 군사인민위원회에 고려인 젊은이들이 보낸 수많은 보고서가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들 모두 거절되었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행동의 불만은 한국(조선?) 국적의 공산주의자들과 청년 공산당원들 가운데 예민하게 나타났다.

결국 고려인에 대한 소비에트 권력의 불신과 국가권력 기관으로부터의 이러한 비슷한 행동은 고려인의 법적 권리와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sup>10)</sup>

물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민을 의심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정치적 의미로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금지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전선으로 흩어진 고려인들이었다. 한마디로 대조국전쟁에 참여한 고려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전

9) Дорогой горьких испытаний, М., 1997, с. 212.

10) ГАРФ. Ф.-Р. 9401. Оп. 2. Д. 2011. Л. 254-256.

한 의용군이었으며, 심장(신남:역자주)이 부르는 대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선으로 향하였다. 그들 중에는 소련 영웅 친위대 소령 알렉산드르 민(Александр Мин, 크림 해방 과정에서 전사), 승리의 행군에 참여한 해군 소위 세르게이 한(Сергей Хан. 1922-1990), 프리발틱 전투에서 전사한 니콜라이 초이(Николай Цой . 1922-1990),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는 훈장 수여자들: 오테르 강(독일:필자주) 상륙 작전을 수행한 소대장이었으며 건축학 아카데미 정회원(Академик), 그리고 소련 국가상을 수상한 니콜라이 김(Николай Ким), 연대 통신병으로 부하레스트, 소피아, 벨그라드, 부다페스트, 빈 해방 전쟁에 참여한 빅토르 세르게예비치 강(Виктор Сергеевич Кан), 잠수함 군인이었던 알렉세이 한(Алексей Хан), 정치부 지도원이었던 스테판 텐(Степан Тен), 기관총 사수이었던 미하일 텐(Михаил Тен), 한(В. Хан),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이들이 있었다.<sup>11)</sup>

다양한 전선에 참여한 이와 비슷한 사례는 밝혀진 것만 약 250여 명의 고려인들이 있다. 전선에 있던 고려인들은 개별적인 능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 후에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였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자신의 이상과 신념에 충실했다. 이것은 대조국전쟁에 참전한 고려인에 관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개별 목록(신상명세서: 역자주)에서** : “나, 한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Хан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는 1922년에 태어나 연해주 하산지역 티진헤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헤가이 안나, Хегай Анна)는 1880년 태어나 1929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한 알렉산드르, Хан Александр)는 1860년에 태어나 1932년에 돌아가셨다.

1933년에서 1935년까지 나는 연해주 이만(Иман)시 내의 어린이집(고아원: 역자주)에 있었다. 1935년에서 1939년 가을까지 나는 노-농 붉은 군대의 급식병이었다.

“러시아의 고려인들”이라는 신문(No.5, 2000.1월)은 한(С.А.Хан)씨에 대해 쓰고 있다. “호감이 적고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그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자랐고, 청소년기에 전선으로 갔으며 해군 소위로 모든 전투에 참여하였고, 부상을 당하였다. 그는 1945년 모스크바의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유일한 고려인이었다.”

**군인중(군인 증명서: 역자주) 중에서** : 초이 니콜라이 멘수르포비치(Цой Николай Менсурпович) : “군사교육 - 튜멘 보병학교, 1944년 프로필 - 자동화기 부대장. 군 계급-육군 소위. 직급-지휘관. 소련 군 근무 기간 - 1943년에서 1946년까지. 경력, 1943 - 1944년 (군사학교: 역자 첨부) 학생, 1944 - 1945년까지 소대장, 1945 - 1946년 중대장. 전투 참여 - 제1 프리발틱 전선에 1944 - 1944년까지 중대장으로 참전.”

전쟁 후에 그는 소집해제 되었고 친척과 함께 우수토브(Уштоб)로 떠났다.

**자서전 중에서** : 초이 니콜라이 멘수르포비치(Цой Николай Менсурпович) : “1977년 가을에 소련 중건설청(Минтяжстрой) 중앙 기구로 자리를 옮겼다. 직책은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РСФСР) 총 생산국 부책임자였으며 1975년까지 근무하였다. 그 후 소연방 국가건설(Госсрое) 산하 총운영국 부책임자로 발령 받았다. 2개의 노동 적위대 훈장을 받았고, 명예훈장과 7개의 메달을 받았다.....”

**김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Ким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 17개의 정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붉은별 훈장과 “대조국전쟁” 훈장을 2개 받았다. 1941 - 1945년 대조국전쟁 전투 50주년 승리의 행진에 참여한 7천여 명의 사람 중 유일한 고려인이다.

1944년 가을 카렐리야 전선에서 전쟁은 끝났다. 제19군 군사위원의 명령으로 다음 날 아침까지 소비에트 자폴라리에 해방 전투를 기념하는 붉은 군대의 동상을 스케치하여 제출하였다.

**알렉산드르 민(Александр Мин)** : 전사하였으나,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인

11)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No. 15, июнь, М., с.7.

독일 전선에 참전하여 최고의 훈장인 소련 영웅이 되었다. 그러한 사람은 유일하며, 우리는 그를 기억해야만 한다.

**리 발렌티나 니콜라예브나(Ли Валентина Николаевна)** : 대조국전쟁에 참여한 고려인 중 내가 아는 유일한 여성이다. 1920년 9월 4일 생.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모스크바 오르조니키제 기술-경제 대학에 입학하였다. 1941년 3학년을 마친 후 20살의 발렌티나는 모스크바 레닌스키 지역의 의용 제1사단 인민 예비부대원으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그 해 8월부터 사단은 제60 소총 사단으로 편입되었다. 이 부대는 남서 전선에 투입되었고,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전쟁의 사선을 넘나들었다.

그녀는 남서 전선의 주코프(Г.К.Жуков) 장군이 이끄는 제49군의 부대원으로 공격작전에 참가하였다. 몇 개월 간 그녀의 부대는 우크라이나의 고벨 도시 해방 전쟁을 지휘하는 원수 로코슈스키(К.К.Рокоссовский)의 중부전선으로 옮겼다. 그 동안 사단은 붉은 훈장을 받았다. 고려인 여성 발렌티나 리가 우크라이나 도시 해방에 참여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렌티나 니콜라예브나 리는 15개의 정부 훈장을 받았으며, 특히 대조국전쟁 상을 받았다. 1945년 7월에 그녀는 소집해제 되었다.

**소련군 근무에 대한 강(В.И. Кан)의 회상 중에서** : “1943년 4월에 나는 군수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음에도 소련군에 자원입대하였다...다행히도 이때 제2지뢰 보충 여단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여단에서 우수하고 빠른 로켓 부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 나는 통신부대로 배치되었다. 1943년 11월 나는 ГМЧ 제 61 근위 자포로쥐에 연대 제2대대 통신소대에서 근무하였다.”<sup>12)</sup>

**이노켄티 박(Иннокентий Пак)** : 1933년 이르쿠츠크 군사-기술 항공학교를 마친 후 기습 항공여단으로 보내졌다. 이 여단은 고렘에서 활동하였다.

그리고 1937년 “불미스러운” 일로 군에서 축출되었다.

대조국전쟁 동안 이노켄티 박은 전선으로 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 소집 명령을 받고 원거리 폭격 항공부대로 보내졌다. 120번의 전투 비행을 수행했고 2번 격추되었다. 적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매번 며칠을 소요하며 자신의 부대로 돌아 왔다. 그리고 다시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는 유럽에서의 전쟁을 끝냈다.<sup>13)</sup>

**대조국전쟁 시기의 황동국<sup>14)</sup> : 베를린까지의 길** : 황동국, 고려인 중에서 북코카서스 지역에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대조국전쟁에 참전하여 베를린까지 갔었다.

건강을 회복한 후 그는 폴란드 해방 전쟁에 참여하였고, 벨로루스와 제2 우크라이나 통합전선에서 근무하였고, 케닉스베르크 전투에 참가하였다. 케닉스베르크 해방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그는 “케닉스베르크 정복” 메달을 수여받았다. 후에 베를린 해방 전쟁 동안 “대조국전쟁 제2급” 훈장을 받았고 “용맹” 메달 2개를 받았으며, 2개의 “전투 지원” 메달을 받았다.

1946년 소집해제 되었다. 황동국은 북코카서스로 돌아갔다.<sup>15)</sup>

**젠나디 한(Геннадий Хан)** : 소위. 연해주에서 태어났다. 모스크바 국립 대학 메카닉-수리학 단과대를 졸업하고 꾸이비체프 시의 비행학교로 보내졌다. 그리고 실제 군에 입대하였다. 그는 흑해 함대 공군 제3 비행대 제40 항공연대의 공중 소총-폭격수이었다. 1943년 적기에 의해 아나프(Анап. 크라스노다르스크주) 지역에서 격추되었다. 그의 나이 23세 이었다.<sup>16)</sup>

12) “Воспоминания участника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ана Виктора,” Дорогой горьких испытаний, М, 1997, с.94-95.

13) Азар Мехтиев, 150 витков вокруг земл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No. 2(23) 2002, февраль.

14) 황동국은 1918년 태어났다. 그는 24세에 붉은 군대에 입대하였다.

15) 손(Ж. Сон)의 메모 중에서.

16) Цой Валентин, “Москов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Мама, я вернулся с победой”,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No. 4(37), 2003. апрель, с.5.

## (2) 후방에서의 활약 - 노동대열, 노무부대 동원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인민 경제에 대한 혹독한 권위주의적-지령 스타일, 생산수단의 성장속도와 소비 환경의 불균형, 사회적 요소의 과소평가 등이 국가 경제와 군 잠재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때 최악의 상황은 최고의 경제 및 군사 전문가들을 수백 수천이나 총체적으로 탄압하였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1937년 소련에는 특히, 고려인과 그리스인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이들의 수는 272,157명의 노동자와 208,184명 종사자, 농부 306,548명, 여성 118,960, 16세 이하의 청소년들 17,264명이었다.

1940년 3월 굴락(교정노동수용소: ГУЛАГ)은 소련 내무인민위원회에 53개 진영, 425개의 교정-노동 수용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특히 농촌집단 지역에 83개, 산업집단 지역에 170개, 그리고 미성년을 위한 수용소가 50개가 있었다.

1940년 6월 26일 명령에 근거하여, 스탈린 체제가 수행한 정책의 결과로 전쟁초기에 굴락 시스템 내에서 230만 명의 소련인들이 처벌을 받았고, 그 중 8%는 노동자와 종사자들이었다.<sup>17)</sup>

왜 1940년대 노동대열 및 노동자 대대 형성을 위한 주민 인원수를 제한 받은 민족의 대표 중 하나가 고려인이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고려인들의 높은 조직성, 가능한 모든 형태의 노동을 통한 주도적 활동이 크게 고려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소련 시민 모두에 적용되는 사회 규정과 법률을 예외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고, 고려인들을 고립된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예외가 조금은 있었다. 무엇보다 고려인

들은 거주 지역 선택에 제한을 받았으며, 행정 기관이 그들에게 지목한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다.

이 기간 중에서 소련에 있는 고려인의 삶은, 안타깝지만, 1940년대 노동 전선에 강제 동원되어 값싼 노동력을 어떻게 제공하면서 삶을 영위해 왔는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노동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소위 노동 그룹 및 노동자 부대에 더 많이 강제 동원된 민족은 독일인(118,000명)이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운명은 고려인, 핀란드인, 크림 타타르 민족의 시민들에게도 불어왔다.

고문서 보관소에서 문서와 자료를 찾는 것, 그 중에서도 “스탈린의 특별한 파일”을 발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고려인”에 대한 역사적 문서의 토대에 답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1943년에는 고려인이 소위 “후방 비정규군”(직접 무기를 들고 국가를 지키는 권리를 상실한 자)으로서 노동자 대대에 소집(동원)되는 일이 많아졌다.

사실 고려인 중에 1937년까지 붉은 군대 내에서 중간 및 상급 지휘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지금 새로운 조건(1940년대 전반부: 즉 전쟁: 역자주)에서 이 간부들은 시민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수도 점차 축소되었다.

1943년 3월에 고려인은 노동대열에 동원 되었고, 특히, 석탄 산업에 7,765명의 고려인이 보내졌다. 그 중 5,135명은 모스크바 근교의 탄광(톨스카야주)에서 일하였다. 2,622명의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카라간딘스크 탄광에서 일하였다.<sup>18)</sup> 이 자료는 “소련의 고려인 대열”이라는 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 보고서는 소련 국가보위인민위원회(НКГБ) 제2운영국이 1943년 8월 19일 작성한 것이다.<sup>19)</sup>

고려인 노동대열(трудова я колонна)과 노동대대(трудова я батальона)의 수는 증가하였다. 이것은 대열과 대대로 동원되어 흩어진 가족의 재결합을

17) Е.М. Мальшева, Соци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и крестьян Северного Кавказа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 1993, с.62.

18) 앞의 책.

19) 앞의 책, Л.252.

허락하는 것, 그리고 붉은 군대에서 소집해제 된 고려인을 가족과 재회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1945년 4월에 톨스카야 주에는 844명의 고려인이 이 혜택을 보았고, 1945년 2분기에는 1,027명에 달하였다.<sup>20)</sup>

코미 공화국 내무인민위원부의 부야노프(Л.Буянов)는 1945년 9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의 베리아(Л. Берия)로 보낸 편지에서 코미 주민 가운데 동원된 독일인, 고려인, 그리고 불가리아인이 진영에 13,807명 있다고 했다. 코미 공화국 내 교정-노동 진영에는 총 106,720명이 있으며, 그들 중에서 동원된 고려인과 불가리아인은 1,564명이다.<sup>21)</sup>

내무인민위원부로 들어온 정보 서류에는 노동대열과 노동대대에 참여한 고려인이 1,500명이었다. 그들은 소련 내무인민위원부 우호틴스크 수용소에서 일하였다.

즉, 노동대열과 노동대대에 동원된 노역, 특히 고려인의 노역은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고, 고도의 생산 활동에 투입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힘겨운 생존 조건, 낙후된 생산 시설, 그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노동의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이 작업을 통해 얻는 것은 대개 노동복, 신발 등이었다. 질병, 불충분한 식사, 열악한 주거 조건은 두말 할 것 없이 고려인의 건강을 위협했고,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큰 손실을 가져왔다.

노동대열과 노동자 대대에서 고려인을 포함한 다양한 대표적인 민족들의 강제 노동은 아마도 권력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인민들 간의 상호 관계를 촉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만약 이 비우호적인 것이 공개적으로(체제 내에)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조건이 될 것이다.

결론은 이 경우 하나의 의미만 남는다. 사회운영(강제 노동)의 정부-지휘

20) 앞의 책, Л.253-246.

21) Ф. Р.-9401. Оп. 1. Д.2065. Л.214.

시스템을 끝내야만 한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도록 하고, 노동 자체에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1940-1950년대 고려인 주민 그룹이 다른 공화국, 변강주 및 주 등의 지역, 특히 러시아 공화국에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농업분야에 종사하였고, 특히 쌀 작물을 재배하였다. 콜호스 경제의 통합은 상급 교육 시설을 부추겼다. 쌀 작물을 재배하는 콜호스로는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강주, 북오세치야 공화국 그리고 다른 지역 등이 유명하다. 그래서 북오세치야 공화국에서는 1940년대 후반부에 고려인들에 의한 콜호스가 두드러진 기능을 하였다. 이 쌀 작물 대대(콜호스:역자주) 중 하나를 1941-1945년 대조국전쟁에 참전한 황동국이 지도하였다.<sup>22)</sup>

그러나 고려인들은 1940년대 후반부에 비단 북오세치야 공화국에서만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다. 그들의 노동은 북코카서스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필요해졌다. 특히 스타브로폴 변강주에서는 고려인 농장이 유명하였다.

### 3. 전쟁과 그리스인

다민족 국가 주체의 민족적 특성에 대한 측정은 훨씬 더 소수민족의 상황을 증폭시켰다.

소련에서 그리스인들이 그러하다. 수적인 면에서 60,000여 명 정도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러시아(소련)로 들어왔다.

소련에서의 사건은 그리스인들의 운명을 용서하지 않았다. 다른 주민들과 함께 그들은 자신들의 정착지에서 강제로 이주해야만 했다.

22) 황동국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 Из дневника Сон Ж.Г., Они сражались за Родину.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народов СССР на фронтах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М., 2005, с. 185-186.

만일 다른 인민들(체첸인, 인구쉬인, 발카르인 등)의 강제이주 원인과 대책이 중앙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리스인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이 원인들을 규명해 볼 시도도 갖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종합해 보건대, 그리스인들(소비에트 그리스인, 외국인, 그리스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망명한 사람들)은 국경을 접한 지역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이주해야 한다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루지아의 흑해 연안,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주 및 크림 공화국으로부터 떠나야만 했다.

1940년대 그리스인의 운명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었다. 그들의 강제 이주는 1942년에 시작되었고, 그 이후 계속 이어졌다. 소련 내무성 특별 분과의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 공화국에 그리스인이 정착하였다. 이들에 대한 강제 이주는 1942년 5월 28일자 소련국가방위위원회(ГКО) 규정 No.1828 "비밀"에 의해 카프카스, 크라스노다르스크주, 그리고 로스토프 주와 크림 공화국의 흑해 연안으로부터 이루어졌다.

1944년 전반부에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내무인민위원회 운영국 국장 세메노프는 베리아에게 주의 영내 40,000(160,000명) 가족 중에서 특별 정착한 그리스인 가족은 604(그들은 크라스노다르스크주에서 왔다) 가족이라고 보고했다.<sup>23)</sup>

크라스노다르스크주와 로스토프주 영내 그리스인의 뒤를 이어 "인민의 지도자 의지에 따라" 흑해연안의 그루지아 공화국과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16,375명의 그리스인이 이주했다. 이 기간 동안 위의 지역에서 이주한 총 인원은 38,937명이며, 그 중 그리스인이 25,957명이었다.

강요에 의해 크림의 그리스인은 길을 "떠났다". 소련국가방위위원회의 규정(No. 6,100 "1급 비밀")에 따라 지역 주민-터키인, 그리스인, 이란인 등 - 의 강제 이주가 시작되었고, 그들 중 1,282명이 그리스인이었으며(남자-375, 여자-536, 어린이-311), 손에는 기한이 지난 여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우

23) ГАРФ. Ф. Р.-9401. Оп.1. Д.2085. Л.249.

즈벡 공화국 지역의 한 곳으로 전쟁기간 동안 이주하도록" 명령을 받았다.<sup>24)</sup>

그리스 주민에 대한 강제이주에서 다음 단계는 1944년 5월에 있었다. 인민위원 베리아는 스탈린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크림 타타르인을 크림에서 이주시킨 후 반소비에트적 요소를 소련 인민위원부가 색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크림 지역에서 현재 불가르인 12,075명, 그리스인 14,300명(1940년대 초까지 크림에 그리스인은 22,652명이었다), 아르메니아인 9,910명이 살고 있다."

편지에는 그리스인에 대한 특정한 수행과 관련하여 밝히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크림 지역에 대부분 살고 있다. 그리스인의 상당수가 특히 해안 도시에 살고 있고, 점령군이 들어왔을 때 교역과 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독일 정권은 교역, 상품의 수송 등에서 그리스인과 협력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련 내무인민위원부의 의견도 밝히고 있다. "내무위원부는 크림 지역에서 모든 불가르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을 이주 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크림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던 15,000명의 그리스인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1944년 6월 2일 소련국가방위위원회(No. 5,984 "1급 비밀")의 규정이 만들어 졌고, 그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소련 내무인민위원부는 1944년 5월 11일의 국가방위위원회의 규정(No.5859 "1급 비밀")에 따른 이주에 대해 불가르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가운데 37,000명의 독일 부역자들을 크림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부터 이주시켜야 한다."<sup>25)</sup>

1944년 7월 4일 베리아는 타타르인, 불가르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특별 이주가 끝났다고 보고했다. 총 225,009명이었으며, 특히 타타르인이 194,000명, 그리스인 15,040명 그리고 외국국적의 그리스인 3,53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것은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주에 있는

24) 앞의 글. Д.4475. Л.41-42.

25) РГАСИ. Ф.664. Оп.1. Д.261. Л.64-65.

강제 이주된 그리스인의 계산이었다. 1944년 7월에 츠칼로프주의 내무인민 위원부 특별이주과 과장은 국가안보위원 체르니소부(В.В. Чернышов)에게 1944년 7월 21일까지 불가르인, 그리스인, 그리고 아르메니아인이 바시키르 스투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 5,727명, 마리스크 사회주의연방공화국으로 581명, 구리엵스크주로 4,289명, 케메로보주로 6,791명, 모로토프주로 10,023명, 키로프주로 550명, 스페르들롭스크주로 10,348명이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잘 알려진 대로, 일단의 그리스인들은 붉은 군대에 복무하였다. 소련 내 무인민위원회 반혁명적 행위와의 투쟁 분과(Л. Забоев) 자료에 따르면, 군에 동원된 그리스인 군복무자는 장교 8명, 선임병사 86명, 일반병사 465명 등 총 569명이었다.

1945년 2월 7일 소련 내무인민위원회의 부위원 체르니소프는 소련 내무인민위원 특별 이주분과장 쉬찌코프(Шитиков)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다른 민족과 함께 해방된 그리스인, 크림 타타르인 그리고 불가르인을 스페르들롭스크주 내무인민위원회 운영국의 관리로 보내라”.

주목할 만한 것은 1944년 5월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특별 이주 분과장 쿠즈니쑈프(М. Кузнецов)가 소연방 내무부장관에게 “독일에 부역하지 않은 크림 불가르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그리고 크림에 사는 동안 명예를 훼손한 자료가 없는 자 중에서 특별 이주 지역에서 크림주로 다시 돌아올 권리가 없는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도록 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1951년 10월 말에, 소련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주 지역에서 19,000명의 특별 이주자-외국 국적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 그리스인은 15,954명, 이란인들 1,157명이 있었다.<sup>26)</sup>

전체적으로 1940년대에 약 62,000명의 그리스인들이 강제 이주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 특별이주민의 수는 1953년 초에 그리스인이 40,590명이었다.

1955년 특별 이주지에는 1944년 크림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부터 이

26) 앞의 글.

주된 10,368명의 그리스인이 남아있었다.

1956년 9월에는 1942-1949년 동안 이주되었던 과거 그리스 시민이었고 소련 국적이 아닌 그리스인과 과거 그리스 시민이었으나 소련 국적을 취득한 그리스인에 대한 특별 이주 제한이 해제되었다. 소련 내무부의 감독 하에 그들은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이전 주거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 4. 마무리

다민족 국가 소련 사회에서 본질적 구성원을 차지하며 사회발전에 커다란 잠재력과 공헌을 아끼지 않은 소수민족은 혁명과 내전 그리고 전쟁 시기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더욱 그 빛을 발휘하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조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무한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인내는 무한한 것이었다.

그동안 러시아 학계에서는 전쟁과 소수민족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부분을 크게 부각시키진 않았으나 강한 러시아의 건설이라는 국가 모토에 상응하게 전시 소수민족의 역할에 대한 사료발굴과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소련의 남부와 동부지역, 즉 자신들의 모국과 인접한 국경에 거주하고 있었던 고려인과 그리스인의 전시 역할과 지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들 소수민족은 전쟁을 전후하여 강제이주를 당한 쓰라린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전쟁을 대비하거나 수행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된 이들 민족 집단에 대해 소련정부는 주거지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한편, 노동대열이나 노동대대로 동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인과 그리스인은 러시아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고려인과 그리스인은 다른 소수민족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동떨어져 준

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참여는 자발적인 참여와 강요된 동원이 교차하는 것이었다. 두 민족은 적성국 민족으로서 적국에 이롭게 할 것이라는 예단 하에 강제이주되었으며 주거 제한을 받았다. '불온'의 딱지가 붙은 이들에게 전쟁 참여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고려인의 전쟁 참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수민족은 모든 장애와 한계를 뚫고 전쟁에 헌신하여 혁혁한 공헌을 세운 것이다. 죽음도 불사한 이들의 영웅담은 곧 다민족 사회 러시아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미래 발전을 보증하는 모범적인 사례에 다름 아닐 것이다.

고려인 강제이주 70주기는 민족 공동체사회의 역사에서 슬픈 날이지만, 과거에 머물러 살 수는 없다. 비록 어렵고 고통스런 역사지만, 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소수민족들의 모든 재능과 에너지는 이제 다민족 국가 러시아의 자유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자유로운 사회건설은 모든 인민이 성숙한 의무와 책임감, 그리고 조국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서 가능할 것이다. 소련정부나 일부 국민이 과거에 범한 오류나 실수가 오늘과 미래를 구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원고투고일 : 2007. 5. 17, 심사완료일 : 2007. 8. 10)

주제어 : 강제이주, 고려인, 그리스인, 조국수호전쟁, 스탈린의 민족정책

<ABSTRACT>

## Participation of Nationalities in The Great Patriotic War(1941~1945)

- Focus on the Examples of the Soviet Koreans and Greeks -

N. F. Bugai

Policies for the nationalities in the Soviet Union composing of national communities were dual policies. In the process of national building and development, the nationalities were treated as the essential members of the Soviet and recognized as the factors of improving socially potential power. In the other hand, nationalities were suspected of their royalties to the Soviet. In order to remove those unstable factors, deportation and injustice treatment were continued. Especially in the latter part of the above mentioned issues apparently appeared in periods of the pre-war, mid-war, post-war, and right after the Second World War(WWII).

Policies for the nationalities, especially the Korean and Greek in the Soviet showed also similar characteristics for the above mentioned factors. Firstly the Soviet considered the Koreans as the sympathizer for Japan. In the periods of the beginning and ending of WWII, the Korean were limited their right and authority rather than forcible obligations as the Soviet people. Even though the Soviet Government denied the Koreans served as the regular soldiers of the Red Army, the Korean recognizing the Soviet as their second motherland did not look on unconcernedly the crisis of the Soviet, could their royalty and obligation for their motherland Soviet with volunteering for participating in the war.

Adversely the Korean were forced to labor in the poor conditions at the rear industrial places during the war.

Nevertheless, among the Koreans had dedicated as war heroes of the Soviet, and hundreds of war victory contributors were rewarded medals and citations by the Soviet Government. Most of these Korean strongly expressed their royalties to their motherland Soviet in processing of the war, and showed their leadership through the many battles, these cases are the representing examples verifying that the Koreans recognized the Soviet as their motherland.

Policies for the Greeks in the Crimean Peninsula are almost the same as the policies for the Koreans in the Soviet. But the Greeks were removed by the Interior Department of the Soviet, the reason why the Greeks helped for the German Occupation Army in proceedings the war. The Greeks were much suffered from the Soviet with forced to labor during the war. Although very few among the Greek could return to their hometown Crimean area during the national reestablishment, most of the Greeks were prohibited to return the initial area by the Soviet.

Through the policies for the Koreans and Greeks during the Great Patriotic War(1941 ~1945), we could concluded that the essential recognition about the policies for the nationalities was not properly understood. So many nationalities were suffered from the Soviet, limited their lights as their routine lives. Soviet peoples, and not made with no reasons, the Honor Recover Movement could secure the common sense of the people after 1990's, and the Russian Federations Government tried to review the policies for the tribes in the different orientation.

This issues such as oppression, removal and labor by regal force by the Soviet clearly brought the grief-stricken memory among the Koreans. But we could live only in the past memory. Available talents and energy could not use for the freely social building of the Russian Government which are consisting multi-nationalities. The freely social building could be proceed to making

conditions that all Russian people keep mature obligation and responsibility, peaceful living with respecting our country. That is to say, mistakes of the past could not be arrested today and future.

<p>Key Words : Deportation, The Soviet Koreans, The Soviet Greeks, The Great Patriotic War, Stalin's National Policies</p>
--